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뉴블루칩3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뉴블루칩3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이익추정치 상향 등의 성장성을 기준으로 30 종목을 선별하여 구성된 뉴블루칩3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하여 뉴블루칩30지수의 포트폴리오를 복제하는 투자전략을 사용

- 이러한 투자전략을 통해 운용역의 판단을 배제하고 인덱스를 충실히 추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덱스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34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 주식편입비: 60% 이상 (단, 뉴블루칩3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의 투자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3년 12월 02일)

- 클래스 A : 2011년 03월 25일
- 클래스 A-W : 2008년 04월 21일
- 클래스 C5 : 2012년 09월 18일

벤치마크 뉴블루칩30지수 10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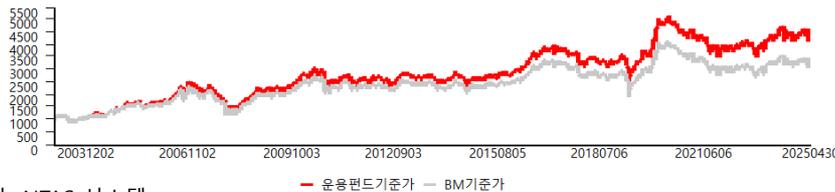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7.24%	4.16%	7.99%	8.33%	18.27%	7.83%	55.43%	360.84%
클래스 A	7.13%	3.83%	7.29%	6.90%	15.18%	6.65%	45.52%	38.90%
클래스 A-W	7.21%	4.08%	7.82%	7.98%	17.49%	6.77%	52.91%	87.78%
클래스 C5	7.13%	3.83%	7.29%	6.90%	15.18%	6.64%	45.52%	46.76%
벤치마크	7.19%	2.72%	6.16%	5.58%	13.37%	0.93%	40.61%	240.1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자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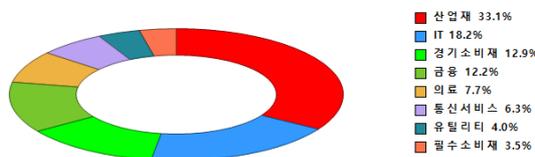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4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4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SK하이닉스	전기·전자	6.5	현대모비스	운송장비·부품	4.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6.5	HD한국조선해양	금융	4.2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5.6	KT	통신	4.0
HD현대중공업	운송장비·부품	4.7	한국전력	전기·가스	4.0
크래프톤	IT 서비스	4.4	NAVER	IT 서비스	3.9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33% (판매 1%)
- 클래스 A-W : 총 연 0.33% (판매 0%)
- 클래스 C5 : 총 연 1.33% (판매 1%)

(공통사항)

운용 0.2825%, 신탁 0.03%, 사무관리0.017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A-W: 납입금액의 0.17%
- 클래스 C, C2, C3, C4, C5: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4월 KOSPI는 전월 대비 3.04% 상승한 2,556.61pt, KOSDAQ은 6.60% 상승한 717.24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발표로 글로벌 시장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며 한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 발표 이후 안도감과 함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부각되며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기대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이 더해지며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기계, 화장품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자동차, 전자부품, 정유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91% 하락한 1,438.50원을 기록하며 원화 강세를 나타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18.56% 하락한 58.2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기관투자자는 3조 5,472억 원, 개인투자자는 5조 2,497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10조 1,26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5월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무역 분쟁 우려가 점차 완화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 의향이 확인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정점을 지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중국과의 문화관광 교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종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연간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멈추며 업황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주요 약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에서 물가나 고용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시장 변동성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여 고금리 수혜주인 금융주와 순현금 보유 기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금리의 고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가격 조정이 컸던 배당주, 리츠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